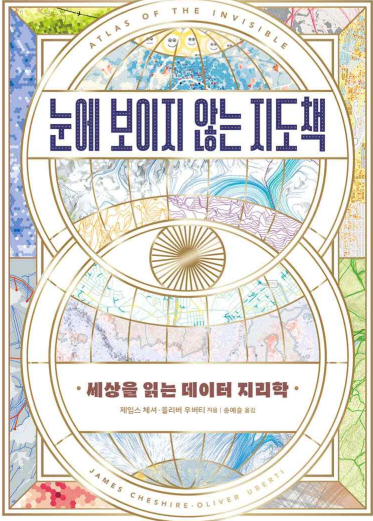


## 진로설계와 실천인성[24] 과제2(서평)

학번 : 20232678

학과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이름 : 조은성

	책 제목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세상을 읽는 데이터 지리학	
	저자	출판사
	제임스 체셔 · 올리버 우버티	월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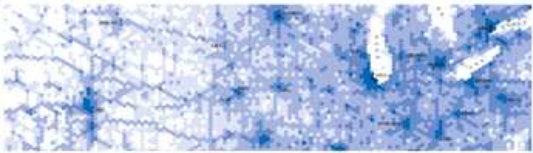

### 1. 내용 요약


일반적인 지도는 지형, 해양과 같이 지구의 표면적을 시각화하는 데 반해 책 속에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 지도'를 선보인다.

총 65종의 데이터를 설명과 함께 다양한 지도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책은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닌 데이터들을 사용해 그려진 지도들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다.

줄거리가 없다시피 한 책의 특성상 내용 요약보단 책에서 소개해 준 지도들 중 나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인상 깊었던 지도 3가지에 대한 소개와 해당 지도로 인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작성해 보겠다.

접속의 강	
 <p>접속의 강</p>	<p>'접속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도는 무선 연결(인터넷)이 연결된 기지국 지점을 표시한 지도이다. 해당 기지국에 들어오는 연결 신호가 강할수록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되었다. 해당 지도를 통해 지역별 통신구조, 정보량 등 다양한 통찰을 가질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에는 50만 개의 셀(채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의 셀은 20개에 불과하다.</p>
<p>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해당 지도를 통해 미래에 데이터 패권을 쥐는 국가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다. 아직 개발이 미흡한 국가를 찾아 해당 국가의 데이터 수집에 상당한 범위를 확보해 둘 수 있다.</p>	
폭탄 보고서	
 <p>폭탄 보고서</p>	<p>'폭탄 보고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도는 베트남전쟁 당시 동남아시아에 투하된 폭탄을 표시한 지도이다. 지도상에 색이 진할수록 폭격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투하된 폭탄 4개 중 1개가 불발탄(UXO)으로 남아있다. 해당 불발탄으로 인해 베트남전쟁 이후 벌어진 캄보디아 내전 때 2만 명이 죽고 4만 5천 천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베트남 땅의 20% 정도가 불발탄으로 인해 오염된 상태다.</p>
<p>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5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피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인 만큼 안보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p>	
머리 위의 탄소	

 <p>머리 위의 탄소</p>	<p>'머리 위의 탄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도는 일주일간 유럽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동량을 표현한 지도이다. 대서양을 왕복하는 승객 한 명이 대기에 배출하는 탄소량은 2년간 육식을 하거나 8년간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와 맞먹으며 평생 소비하는 비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4배에 이른다. 비행운으로 인해 탄소의 배출은 더욱 어려워진다.</p>
<p>집이 김포공항과 가까워 하루에 한 번은 꼭 비행기를 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매연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비행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p>	

## 2. 자신의 진로에 적용

이 책을 읽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으며 시각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추후 내 진로인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할 때 데이터 관리와 시각화에 더욱 신경 쓰는 계기가 될 거 같다.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직장동료, 상사, 고객 등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력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